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오광진*(한국재활복지대학)

초 록

본 연구는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에 그 목적이 있다. 1차 조사에서는 장애인체육지도자 269명을 설문조사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장애인체육지도자 281명을 설문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은 김병준과 오수학(2008), 그리고 Benson(1998)이 제안한 3단계 타당화 과정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고, SPSS 18.0과 AMOS 7.0 프로그램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상관분석,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사를 수행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예비 판 척도 5요인(전문지식, 실기능력, 인간적 품성, 자기개발, 사회성 능력) 60문항을 추출하였다. 둘째, 1차 설문조사 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5요인 37문항을 추출하였다. 셋째, 2차 설문조사 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5요인 28문항을 추출하였다. 넷째, 2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인 5요인 28문항을 확인적 요인분석한 결과 최종 5요인 21문항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검증 결과에서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척도는 하위 요인별로 개념 및 내용을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임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장애인체육, 특수체육, 체육지도자, 장애인체육지도자

* kunokj11@hanmail.net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11-327-G00113)”

I. 서론

흔히 생활체육의 3요소를 말할 때 우리는 지도자, 시설, 프로그램을 언급한다(임변장, 2008).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도자를 꼽는다. 이는 교육의 질은 지도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고전적인 교육학의 금언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권민혁, 2006). 그러한 이유는 체육현장에서 비록 시설과 프로그램이 미비할지라도 지도자가 열정적으로 체육활동을 가르친다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체육활동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장애인체육 역시 예외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체육활동에서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요소가 지도자일 것이다. 장애인체육지도자(이 연구에서는 장애인체육지도자와 특수체육지도자를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기도 함)는 일반 체육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 이외의 그 무엇을 요구한다. 그 무엇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곤란하며, 장애인체육지도자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야 밝힐 수 있다.

마침 장애인체육 분야에서는 기존의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치료 및 재활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생활체육 및 국민체육으로 관점을 돌리고 있다. 그 이유는 2005년 국민체육진흥법(2005)이 개정되어(법률 7630호, 2005. 7. 29), 이 법률의 제23조 2에 의거하여 ‘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고(대한장애인체육회, 2007),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본격적으로 행정 및 조직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이 문화활동으로 자리 잡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우수한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확보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2008년부터 전국 16개 시·도 장애인체육회 산하에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도울 수 있는 장애인체육지도자를 양성(국가 공인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전국을 5개 권역(서울시 및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으

로 구분하여 매년 약 300명~500명의 장애인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과정이 체계적이고 우수한 체육지도자를 확보할 수 있는지는 한 번쯤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 일선 장애인 체육현장에서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체육지도자들의 자질은 어떠하며, 이들의 자질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아직 없는 것 같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장애인체육지도자를 무조건 양성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이들이 우수한 자질을 함양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그렇지 못한 것이 또한 현실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고려하면서 기존에 연구되었던 체육지도자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최의창(1996)은 전문가로서의 체육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이 무엇이고, 체육지도자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물음은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체육활동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하였다. 체육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자질은 이론과 실기를 겸비하는 노력이 중요하며, 이 두 가지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최의창, 1995; Lawson, 1990). 박진경(1999) 역시 체육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스포츠심리학과 같은 이론적 지식, 테니스와 수영 기능을 지도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 그리고 체육현장에서 습득할 수 있는 현장 지식을 강조하였고, 신철호와 손천택(1996)은 이에 더하여 체육지도자로서의 충분한 경험과 폭넓은 지식을 배양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사회체육지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논문도 있었으나,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란 용어가 공식적인 명칭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란 용어를 사용함)와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적인 자질과 전문적인 능력, 즉 이론 및 실기 능력을 배양하여 체육활동 참여자에게 성공적인 체육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운동기능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활체육의 전문적 기능, 지식의 전달, 체계적인 활동 전개, 사회봉사 활동, 원만한 인관관계 등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김숙자, 1991). 이에 반해, 김현식과 이제행(2003)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실기지도를 하는 교육적인 역할과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이중적인 역할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생활체육지도자로서 신분보장의 불확실성, 낮은 급여, 인간관계의 어려움, 부정적인 사회인식 등으로 인해 자신의 신분에 갈등을 겪고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한편, 한국의 장애선수들은 자신이 운동을 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체육지도자를 지목하고 있다(최승권, 한동기, 김권일, 2004).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체육지도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며, 선진국의 기술을 습득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 선수에 대한 인격 모독 등 체육지도자로서의 전문성과 경험의 부족, 그리고 기본적인 자질의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박병도, 임찬규, 2004). 이에 장애인체육지도자(특수체육 지도자를 장애인체육지도자로 변경하여 사용하기도 함)는 장애인들의 신체활동을 계획 및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유형과 정도, 손상 부분의 잔존 능력을 정확히 알고, 장애인들의 신체활동을 계획해야 하며(노형규, 오광진, 2005),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장애인을 위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체육현장에 들어가지만 결과는 장애인을 가르친다는 일이 즐거움보다는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최선미, 2001).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체육지도자들의 교육 프로그램에는 이들이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일관된 내용들을 포함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Ersing & Wheeler, 1971; Bird & Gansneder, 1979). 한국에서도 이범진(2007)은 장애인체육지도자라면 누구나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고 한국형 장애인체육지도자

의 자질 함양을 위한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이인경, 최승권, 이재원(2006)은 장애인체육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국내에서 수행된 장애인체육지도자 혹은 체육지도자 관련 선행문헌들을 고찰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논문들은 지도자의 자질과는 관련이 적은 논문들임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특수체육지도자의 준비요건(노형규, 2007; 노형규, 오광진, 2005), 특수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안(박병도, 2007), 특수체육지도자의 전문가적 인식(최승오, 김승재, 2003), 스포셜올림픽에 참가한 특수체육지도자의 참여경험 및 교육신념(채규연, 조영희, 2010), 미래 특수체육지도자가 될 특수체육교육과 학생들의 전공교과과정 만족도와 개선 방안(조영희, 2010) 등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반체육지도자의 자질과 관련된 연구들 역시 체육지도자 본연의 임무 및 역할을 강조하기 보다는 학교체육지도자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기대(권순용, 2010), 사회체육지도자의 교육 경험과 전문능력 신장(안혜임, 김경숙, 2006), 사회체육지도자의 갈등 및 이직(김현식, 2004), 체육지도자의 역할과 과제(박진경, 2000) 등이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에는 어떤 내용 및 개념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이에 연구자는 장애인체육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무엇이며, 그 본질적 속성은 무엇인가가 더 궁금해 졌다. 과연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을 둘러싸고 있는 현상과 본질은 무엇이며, 그 개념 및 정의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 장애인체육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자질의 개념이 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는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에 필요한 본질은 찾지 못하고 현상만 찾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체육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양성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장애인체육 전공자들조차 막상 장애인들을 만나 체육활동을 가르치게 되면 이들의 일반적 특성을 잘 모른 채 신체활동을 가르치고 있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오광진, 2010). 이러한 사실은 장애인체육(특수체육)이 발전한 미국에서도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위해서는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이 필요함을 오래 전에 깨닫고 있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과정은 한국의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과정과는 교육적, 환경적,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미국식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과정을 그대로 차용하기에는 아직도 한국에서는 그 개념 및 구조, 그리고 지식 체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는 장애인체육지도자 자질의 본질적 속성을 개념화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이러한 자질의 개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구조화하는 것은 향후 특수체육학의 정체성 규명은 물론, 우수한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 그리고 장애인체육지도자의 현장 평가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장애인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장애인 체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이 무엇이며, 어떠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며, 이러한 자질의 속성 및 본질은 어떤 개념, 요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을 개념화 하여 측정도구를 개발 및 타당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고, 2011년 현재 S시, G도, C도의 4개 대학 특수체육(교육)과에 재학하고 있는 2, 3, 4학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하였다. 이들 연구대상자들

은 특수체육과에서 적어도 1년 이상 특수체육교과목을 수강하였기 때문에 장애인체육에 대한 이해가 일반체육지도자보다 넓다. 또한, 이들 대학교에서는 일선 장애인체육현장을 이해하기 위한 수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체육지도자의 현장 경험을 수행케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장애인체육지도자로 불러도 좋겠다는 특수체육교수 3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체육현장에서 특수체육학(혹은 장애인체육학)을 공부하지 않고 장애인체육지도자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이상의 특수체육학 공부 혹은 현장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장애인체육지도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특수체육학 교수) 3인의 의견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1차 연구에서 예비판 척도를 작성한 후 2차 연구(1차 설문조사)에서 장애인체육지도자 2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이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6명을 제외한 269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3차 연구(2차 설문조사)에서는 1차 설문조사와 동일한 연구대상자 2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4명을 제외하고 281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1차와 2차 설문조사에서 연구대상자의 사례수가 차이가 있는 이유는 연구대상자들의 개인 및 학교 사정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설문지 수집과정은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2.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과정

본 연구는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김병준과 오수학(2008), 그리고 Benson(1998)의 3단계 타당화 프로그램 과정을 수정·보완하여 수행하였다. 측정도구 개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단계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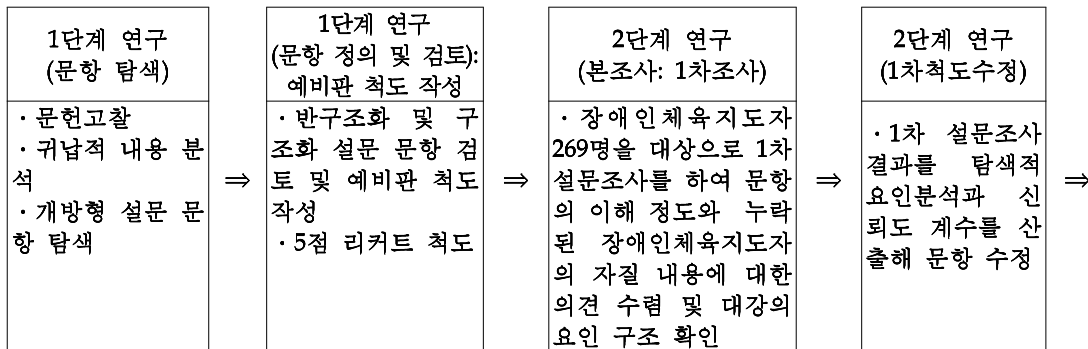
1단계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개별 및 집단 면담에서 획득한 개방형 설문 내용을, 델파이 방법(이종성, 2001)을 사용하여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반구조화 문항(semi-structured items)과 구조화된 문항(structured items)으로 구성하였다. 문항검토와 포괄적으로 수집한 양적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인체육지도자들의 자질에 관한 예비판 척도를 작성한 후 그 내용이 적합한지 검증하였다. 다시 말해,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과 관련된 포괄적인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후,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선정하여 포괄적인 내용 범주에 포함하였다. 한편으로는 일선 장애인체육지도자 5명, 특수체육학 박사 3명 등에게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델파이 방법을 사용해 개방형 설문으로 조사하였다. 또, 일선 장애인체육지도자들이 응답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에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내용들을 선별하여 반구조화 및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안면 타당도(face validity)와 간단한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로 검증하여, 5점 리커트(Likert) 척도의 구조화된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때 각 문항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내용을 잘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5점에 가까울수록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이 긍정적임을 의미하고 있다.

2) 2단계 연구

2단계 연구에서는 1차 설문조사(269명)를 토대로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내용을 대표하는 요인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자질 요인들의 특정 문항들이 이론 구조에 적합한지를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사용해 알아보았다. 즉, 1차 설문조사에서 구조화를 통해 설문문항의 2~3배를 확보한 후, 2차 설문조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문항이나 중복되는 문항을 삭제하여, 장애인체육지도자로서의 자질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문항을 추출하였다.

3) 3단계 연구

3단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이 중도에 설문 응답에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구하면서 2차 설문조사(281명)를 수행하였다. 이때 연구자는 사전에 특수체육과 학과장님께 협조를 구한 다음 본 연구자 및 보조연구자가 직접 그 장소를 방문하여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ed method)으로 설문문항을 응답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3인(특수체육 박사 2명, 스포츠심리학 박사 1명)이 검토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측정도구의 주요 개발 및 타당화 과정을 단계별로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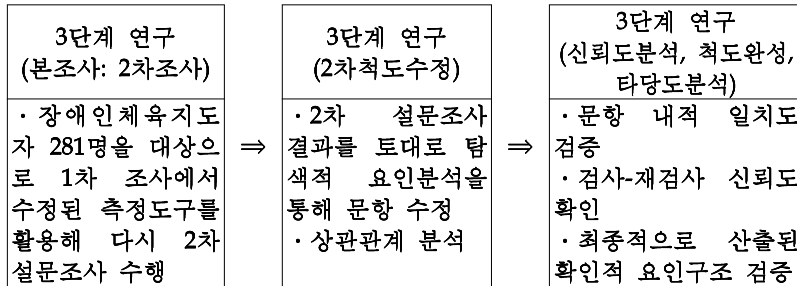


그림 1.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과정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장애인체육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기입한 자료들을 회수한 후 성실히 응답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된 자료를 제외하였다. 또한 극단 값도 아웃라이어(outlier)를 통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다음 자료분석을 하였다. 이후 자료로서 분석 가능하고 유용한 자료를 대상으로 SPSS 18.0과 AMOS 7.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분석의 목적에 맞게 통계처리를 하였다. 1차 설문조사의 자료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하여 60문항을 37문항으로 축소하였다. 2차 설문조사는 탐색적 요인분석 중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 방법을 사용하여 37문항 중 28문항을 추출한 후, 이를 다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거쳐 최종 5요인 21문항을 추출하였다. 이때 확인적 요인분석은 공변량 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을 사용하여 카이제곱(χ^2)과 Q값(χ^2/df), 기초적합도 지수(GFI), 비표준적합지수(TLI), 비교적합지수(CFI), 개력화오차평균(RMSEA), 원공간 평균차이(RMR) 지수를 기준으로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였으며(김계수, 2007), 최종 선정된 모델을 구성하는 하위요인과 문항에 대한 개별항목 신뢰도(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판별타당도, C.R값, 요인 설명 회귀 계수값을 바탕으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신뢰도 검사에서는 문항내적 일치도

(Cronbach's α), 상관분석, 검사-재검사를 실시하였다.

Ⅲ. 결과

1. 문항 분석

본 연구의 측정도구 문항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과 관련된 문헌고찰, 개방형 설문을 이용한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요인에 대한 개괄적 자료수집,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요인에 대한 개인 및 인터넷(현장 장애인체육지도자 5인, 특수체육학 교수 3명) 면담을 근거로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예비판 척도 문항은 5요인 6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탁진국(1996)은 문항평균이 4.5 이상이거나 표준편차가 0.1 이하인 문항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엄한주(1996)는 첨도(kurtosis)와 왜도(skewness)의 절대 값이 2이상인 문항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한 척도에 50%이상의 반응비율을 나타내거나 각 문항간의 상관계수가 .90 이상이면 두 변수가 거의 같다(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8)고 할 수 있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용국과 성장훈(2007)은 이러한 분석과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예비판 척도 5
 요인 60문항을 자료분석하며 축소해 나갔다. 자료분
 석 결과는 전문지식 관련 14문항(Q1~Q14), 실기능력
 14문항(Q15~Q28), 인간적 품성 13문항(Q29~Q41),

자기개발 11문항(Q42~Q52), 사회성 능력 8문항(Q53
 ~Q60) 등이었다. 이러한 문항들을 5점 리커트 척도
 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문항내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예비판 척도 문항

문항	내용
Q1.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체육철학이 있어야 한다.
Q2.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체육학 지식이 있어야 한다.
Q3.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의학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Q4.	장애인체육지도자는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Q5.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Q6.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장애인스포츠 종목별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Q7.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가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Q8.	장애인체육지도자는 감각운동을 알고 있어야 한다.
Q9.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지각운동을 알고 있어야 한다.
Q10.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여가 유형을 알고 있어야 한다.
Q11.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장애인의 심리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Q12.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장애인의 운동기능을 알고 있어야 한다.
Q13.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장애인의 신체상태를 알고 있어야 한다.
Q14.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장애인의 체력상태를 알고 있어야 한다.
Q15.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체육 실기능력이 있어야 한다.
Q16.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장애인스포츠 종목별 실기능력이 있어야 한다.
Q17.	장애인체육지도자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있어야 한다.
Q18.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장애인의 수준에 맞게 체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Q19.	장애인체육지도자는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Q20.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알맞은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Q21.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운동발달 순서에 맞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Q22.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체력운동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Q23.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여가 활용 기술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Q24.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운동기능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Q25.	장애인체육지도자는 놀이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Q26.	장애인체육지도자는 게임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Q27.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창조적 표현기술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Q28.	장애인체육지도자는 개별화 체육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Q29.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Q30.	장애인체육지도자는 봉사정신이 있어야 한다.
Q31.	장애인체육지도자는 긍정적인 태도가 있어야 한다.
Q32.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Q33.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Q34.	장애인체육지도자는 모범적이어야 한다.

문항	내용
Q35.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
Q36.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Q37.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Q38.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성실성이 있어야 한다.
Q39.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Q40.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
Q41.	장애인체육지도자는 개방적 자세가 있어야 한다.
Q42.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지도력이 있어야 한다.
Q43.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
Q44.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Q45.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상황 대처 능력이 있어야 한다.
Q46.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섬세한 관찰력이 있어야 한다.
Q47.	장애인체육지도자는 단정한 용모를 가져야 한다.
Q48.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줄 알아야 한다.
Q49.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자기관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
Q50.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장애인의 신체활동 참가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Q51.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Q52.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안전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Q53.	장애인체육지도자는 대인관계가 좋아야 한다.
Q54.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의사소통 능력을 가져야 한다.
Q55.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유머가 있어야 한다.
Q56.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선입견을 배제해야 한다.
Q57.	장애인체육지도자는 편견을 배제해야 한다.
Q58.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장애인을 포용해야 한다.
Q59.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친절하게 상담해야 한다.
Q60.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친밀한 인간관계를 가져야 한다.

2. 탐색적 요인분석

1) 1차 탐색적 요인분석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측정도구의 정규분포성과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헌고찰, 현장 장애인체육지도자, 특수체육교수 등의 의견을 델파이 방법을 사용하여 예비판 척도 5요인(전문지식, 실기능력, 인간적 품성, 자기개발, 사회성 능력) 60문항을 작성하였다. 그 후 김계수(2007)가 제안한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확인하였다. 첫째는 상관행렬의 상관계수를 확인하는 절차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수가 0.3 정도 이상을 나타내면 요인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0.4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KMO(Kaiser-Meyer-Olkin)의 MSA(표본적합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으로 KMO 값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로 값(0~1)이 1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상관이 .861로 기준에 적합하게 나타났다. 셋째,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Bartlett의 유의확률이 .05 미만이면 모형이 적합하다(Hair et al, 1998). 본 연구에서의 측정모형 유의수준은 .000($\chi^2=388.57/df=228$)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eigen value)을 스크리 차트(scree chart)에 표시할 때 곡선이 나타나면 요인분석에 적합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곡선이 나타나지 않고 한 곳 이상에서 크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 요인분석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분석 기준을 설정하여 장애인체육지도자 269명을 대상으로 5요인 60문항을 탐색적 요인분석 중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5요인 37문항(전문지식 9문항, 실기능력 9문항, 인

간적 품성 10문항, 자기개발 5문항, 사회성 능력 4문항)으로 축소되었다. 탁진국(1996)은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eigenvalue)가 1.00 이상이고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40 이상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추출한 문항은 Q1, Q2, Q3, Q6, Q7, Q8, Q9, Q10, Q14, Q17, Q18, Q19, Q20, Q21, Q22, Q24, Q25, Q28, Q29, Q30, Q31, Q32, Q33, Q35, Q36, Q37, Q38, Q39, Q43, Q44, Q47, Q48, Q49, Q56, Q57, Q58, Q60이었다.

2) 2차 탐색적 요인분석

1차 설문조사의 통계분석과 전문가 3인의 협의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5요인 37문항을 추출하였다. 이 추출된 설문문항을 재작성하여 연구자는 장애인체육지도자 281명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설문조사 역시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측정도구의 정규분포성과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1차 설문조사 대상자 중 장애인체육지도자 281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의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 방법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5요인 28문항(전문지식 6문항, 실기능력 7문항, 인간적 품성 8문항, 자기개발 4문항, 사회성 능력 3문항)을 추출하였다. 이때 1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37문항 중 전문지식 3문항, 실기능력 2문항, 인간적 품성 2문항, 자기개발 1문항, 사회성 능력 1문항이 삭제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전문지식 6문항(Q3, Q6, Q7, Q8, Q9, Q10), 실기능력 7개 문항(Q18, Q19, Q20, Q21, Q22, Q24, Q28), 인간적 품성 8문항(Q31, Q32, Q33, Q35, Q36, Q37, Q38, Q39), 자기개발 4문항(Q44, Q47, Q48, Q49), 사회성 능력 3문항(Q56, Q57, Q58)이 추출되었다. 이를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2차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결과

요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공통성	신뢰도 (α)
전문 지식	Q3	.299	.512	.159	.096	.167	.414	.88
	Q6	.227	.649	.276	.108	.149	.583	
	Q7	.138	.630	.359	.290	.143	.649	
	Q8	.141	.838	.251	.186	.089	.827	
	Q9	.174	.852	.247	.129	.099	.844	
	Q10	.156	.666	.221	.040	.314	.617	
실기 능력	Q18	.302	.279	.675	.334	-.047	.738	.91
	Q19	.279	.356	.685	.181	.097	.718	
	Q20	.298	.281	.689	.298	.030	.733	
	Q21	.256	.286	.642	.099	.328	.678	
	Q22	.224	.288	.677	.047	.355	.719	
	Q24	.222	.471	.572	.027	.269	.671	
	Q28	.308	.277	.640	.297	.064	.673	
인간 적 품 성	Q31	.732	.099	.286	.078	.162	.659	.92
	Q32	.702	.166	.234	.192	.075	.618	
	Q33	.718	.224	.108	.164	.123	.619	
	Q35	.732	.156	.196	.328	.135	.724	
	Q36	.673	.202	.243	.341	.184	.704	
	Q37	.646	.155	.362	.277	.150	.671	
	Q38	.733	.170	.275	.165	.149	.691	
	Q39	.673	.197	.159	.090	.302	.616	
자기 개발	Q44	.445	.314	.040	.068	.502	.555	.78
	Q47	.202	.201	.031	.016	.765	.668	
	Q48	.197	.190	.297	.257	.689	.705	
	Q49	.352	.190	.255	.352	.604	.714	
사회 성 능 력	Q56	.414	.130	.249	.711	.221	.804	.85
	Q57	.334	.203	.246	.774	.135	.830	
	Q58	.378	.291	.235	.561	.129	.614	
고유치	13.54	2.19	1.42	1.00	.90			
변량(%)	48.37	7.81	5.08	3.59	3.21			
누적변량(%)	48.37	56.19	61.27	64.86	68.06			

3) 상관관계 분석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측정도구 5요인들(21문항)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평균점수는 인간적 품성 4.4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 능력 4.47점, 실기능력 4.42점, 전문지식

4.21점, 자기개발 4.14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들 요인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모든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전문지식은 실기능력(.69), 실기능력은 인간적 품성 (.68), 인간적 품성은 사회적 능력(.72)에서 높은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을 잘 개념화 하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표 3.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하위 요인 간 상관관계

요인명	평균 (표준편차)	전문지식	실기능력	인간적품성	자기개발	사회성능력
전문지식	4.21(.61)	1.00				
실기능력	4.42(.61)	.69***	1.00			
인간적품성	4.49(.56)	.51***	.68***	1.00		
자기개발	4.14(.64)	.55***	.54***	.63***	1.00	
사회성능력	4.47(.62)	.53***	.67***	.72***	.28***	1.00

*** $p < .001$

일치도 값은 .79~.90으로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관련 측정도구를 잘 측정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3. 신뢰도 분석

1) 문항내적 일관성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문헌고찰, 현장 장애인체육지도자, 특수체육교수 등의 의견을 델파이 방법을 사용하여 예비판 척도 60문항을 작성하였다. 예비판 척도 60문항을 가지고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요인 37문항을 추출하였다. 37문항의 문항내적 일치도 값(Cronbach's α)은 전문지식 .91, 실기능력 .93, 인간적 품성 .92, 자기개발 .82, 사회성 능력 .84로 나타났다. 이들 문항내적 일치도 값은 .82~.93으로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요인, 28문항을 추출하였다. 이들의 문항내적 일치도 값은 전문지식 .88, 실기능력 .92, 인간적 품성 .92, 자기개발 .79, 사회성 능력 .85로 나타났다. 이들 문항내적 일치도 값은 .79~.92로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2차 자료를 가지고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을 수행하여 7문항을 제외한 후 최종 5요인 21문항을 확정하였다. 이들 문항의 문항내적 일치도 값은 전문지식 .88, 실기능력 .89, 인간적 품성 .90, 자기개발 .79, 사회성 능력 .85로 나타났다. 이들 문항내적

2) 검사-재검사

시간 경과에 따른 검사점수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4주간의 간격을 두고 검사-재검사(test-re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검사-재검사의 점수 사이에 상관이 높으면 시간의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상관계수가 .20~.40이면 신뢰도가 낮으며, .40~.60이면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고, .60~.80이면 신뢰도가 높으며, .80 이상이면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근모, 김인형, 2006). 김원표(2006)는 검사-재검사를 실시할 때 표본 비율이 전체 표본의 5~10%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차 연구(1차 설문조사)와 3차 연구(2차 설문조사)의 표본자료 중 1~30번에 해당하는 장애인체육지도자 30명을 대상으로 검사-재검사를 실시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검사 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검사-재검사의 신뢰도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검사-재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재검사 신뢰도

요인	검사점수 (N=30)	재검사점수 (N=30)	t값
1. 전문지식	4.26(0.59)	4.13(0.54)	.869
2. 실기능력	3.91(.92)	4.13(0.32)	-1.023
3. 인간적 품성	4.18(0.89)	4.36(0.49)	-.843
4. 자기개발	4.19(0.88)	4.11(0.42)	.380
5. 사회성 능력	4.10(0.95)	4.02(0.53)	.296

()는 표준편차

4. 타당도 분석

1)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로 추출된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측정도구에 대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2차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AMO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통해 분석하였다. 최대우도법은 측정변수가 다변량 정규분포(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를 따를 때, 정확한 미지수의 추정을 가능하게 해주고, 적정한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다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을 일부 벗어난다고 해도 미지수 추정에 큰 문제가 없는 특징이 있다(김계수, 2007).

모델의 적합도 평가는 카이자승(χ^2)과 Q값

(χ^2 / df), 기초적합도 지수(GFI), 비표준적합지수(TLI), 비교적합지수(CFI), 개력화오차평균(RMSEA), 원소간 평균차이(RMR)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표 5>에 제시한 것과 같이, 5요인 28문항의 요인 구조를 확인한 결과, CFI와 TLI를 제외하고 조금 미흡한 적합지수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는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하여 최대우도 모수추정치와 각 경로의 기각비(C.R.)가 1.96 이하인 문항, 다중상관제곱(Squared Multiple Correlations)이 0.3이하인 문항, 그리고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가 10.0 이상인 문항을 수정해 나가면서 적합지수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와 같이, 모형의 적합도 지수 값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며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척도 5요인 28문항 모형을 대상으로 최적 모델 찾기를 실시하였다. 먼저 5요인 28문항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기초로 다중상관제곱(SMC)이 기준치 이하와 조정지수 값(M.I.)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간적 품성 Q39(20.61)과 Q33 문항(15.33)을 제거한 결과, 전체적인 적합지수가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5요인 26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지수 값(M.I.)이 큰 전문지식 Q3(20.48), Q6(13.13) 문항, 실기능력 Q21(18.61), Q22(12.01) 문항, 그리고 인간적 품성 Q32 문항(10.75)을 추가로 삭제한 결과,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5요인 21문항의 모든 지수 값들이 향상된 수준을 나타내어,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측정도구는 최종 5요

표 5.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χ^2	df	Q	GFI	TLI	CFI	RMSEA	RMR
5요인 28문항	822.357	340	2.419	.823	.902	.912	.071	.036
5요인 26문항	704.864	289	2.439	.834	.907	.918	.072	.037
5요인 21문항	425.234	179	2.376	.873	.929	.940	.070	.033

적합기준: Q(3.0이하), GFI(.90이상), TLI(.90이상), CFI(.90이상), RMSEA(.08이하), RMR(.05이하)

인 21문항으로 확정하였다.

<그림 2>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측정도구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경로모형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지식 요인을 설명해 주는 하위 문항들의 회귀계수는 .68~.95, 실기능력을 설명해 주는 하위 문항들의 회귀계수는 .71~.83, 인간적 품성 요인을 설

IV. 논의

본 연구는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김병준과 오수학(2008), 그리고 Benson(1998)이 제안한 3 단계 타당화 프로그램 과정(개념적 검토, 내적구조 검토, 외적관계 검토)을 수정·보완하여 장애인체육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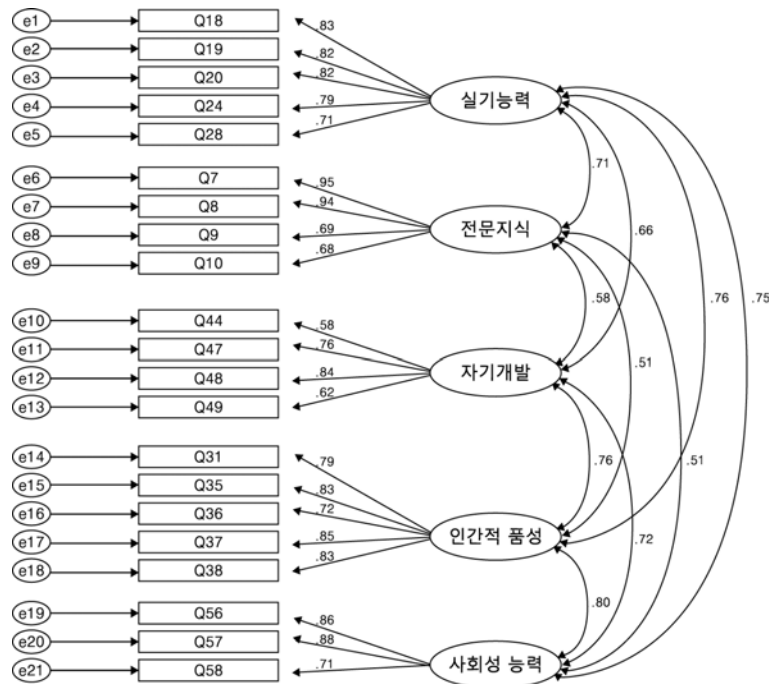


그림 2.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도

명해 주는 하위 문항들의 회귀계수는 .72~.85, 자기개발 요인을 설명해 주는 하위 문항들의 회귀계수는 .58~.84, 사회성 능력을 설명해 주는 하위 문항들의 회귀계수는 .71~.88을 나타내 주고 있다.

도자의 자질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를 검증 및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문항분석에서 우선 연구자는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과 관련된 문헌고찰, 개방형 설문을 이용한 개괄적 자료수집,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과 관련된 개인 및 집단 면담을 근거로 1차 전문가 회의를 하였다. 설문내용이 중복되거나 그 의미가 애매하다고 판단

된 문항들을 배제하고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과 관련된 예비판 척도 5요인 60문항을 작성하였다. 이후 예비판 척도 설문지 60문항은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5요인(전문지식, 실기능력, 인간적 품성, 자기개발, 사회성 능력)으로 분류해도 좋다는 답변을 얻었다.

본 연구결과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은 장애인체육지도자들이 장애영역의 특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전문지식, 실기능력, 인간적 품성, 자기개발, 사회성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하위요인에는 전문지식, 실기능력, 인간적 품성, 자기개발, 사회성 능력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전문지식은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을 시킬 때 전문적으로 요구되는 지도자의 자질과 관련된 철학, 의학적 지식, 장애이해, 체육의 가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실기능력은 장애인체육지도자들이 직접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을 시킬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 개발, 운동발달, 운동기능, 체력운동, 놀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인간적 품성은 장애인체육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인격, 사랑, 인내심, 봉사정신, 책임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기개발은 장애인체육지도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서도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도력, 개방성, 상황 대처 능력, 새지식 습득, 자기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성 능력에는 장애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여 대인관계, 의사소통, 유머 능력을 함양하고, 편견을 없애는 노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들과 문항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문지식 요인에서는 Q9의 문항 ‘지각운동을 알고 있어야 한다($\beta=.97$)’, 실기능력 요인에서 Q19의 문항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beta=.83$)’, 인간적 품성 요인에서 Q36의 문항 ‘신뢰가 있어야 한다($\beta=.85$)’, 자기개발 요인에서는 Q48의 문항 ‘자기관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beta=.84$)’, 사회성 능력 요인에서는 Q56의 문항 ‘선입견을 배제하여야 한다($\beta=.88$)’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경로계수로는 전문지식 요인에서는 Q5의 문항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가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beta=.68$)’, 실기능력 요인에서 Q24의 문항 ‘운동기능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beta=.71$)’, 인간적 품성 요인에서 Q31의 문항 ‘긍정적인 태도가 있어야 한다($\beta=.72$)’, 자기개발 요인에서는 Q44의 문항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beta=.62$)’, 사회성 능력 요인에서는 Q58의 문항 ‘장애인을 포용해야 한다($\beta=.71$)’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측정도구는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그 문항내용 역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향후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도구를 개정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5요인 60문항을 구성해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측정도구를 탐색적·확인적 요인 분석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5요인 21문항을 확정하였다. 이때 연구자의 판단으로는 인간적 품성과 자기개발 요인이 조금 중첩되는 문항이 있었지만 통계처리 결과 요인별로 구분이 되어 각각 분리하여 요인명을 명명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5요인 60문항을 작성하였을 때 문항들 사이에 부정문항을 삽입하지 않고 작성하였다. 일반적으로 설문문항을 작성할 때에는 중간 중간에 부정문항을 삽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설문문항은 긍정적인 문항을 유도하는 질문을 작성해도 좋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렇게 하였다. 향후 이 설문지를 개정할 때에는 부정문항을 삽입하여 설문문항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예비판 척도는 5요인 60문항(전문지식 14문항, 실기능력 14문항, 인간적 품성, 13문항, 자기개발 11문항, 사회성 능력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1차 설문조사 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5요인 37문항(전문지식 9문항, 실기능력 9문항, 인간적 품성 10문항, 자기개발 5문항, 사회성 능력 4문항)을 추출하였다.

셋째, 2차 설문조사 후에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여 5요인 28문항을 추출하였다.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최종 5요인 21문항(전문지식 4문항, 실기능력 5문항, 인간적 품성 5문항, 자기개발 4문항, 사회성 능력 3문항)을 확정하였다.

참고문헌

국민체육진흥법(2005). 법률 7630호(2005. 7. 29).
 김계수(2007).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나래.
 김병준, 오수학(2008). 체육학 연구방법(제3판). 서울: 레인보우북스
 김숙자(1991). 현상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체육.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김용국, 성장훈(2007). 지체장애인의 신체적 자기개념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특수체육학회지**, 15(3), 27-50.
 김원표(2006). SPSS 통계분석강의. 서울: 사회와 통계.
 김현식(2004). 사회체육지도자의 갈등 및 이직. **한국체육학회지**, 43(3), 365-373.
 김현식, 이제행(2003). 생활체육지도자의 직업사회

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9, 335-353.
 권민혁(2006). 체육지도자 양성 현황과 개선 방향. **스포츠과학 96호**, 가을호.
 권순용(2010). 학교체육지도자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기대. 2010 학교체육 진흥 세미나, 3-16.
 노형규(2007). 통합체육수업을 위한 일반체육교사의 준비요건 탐색: 미국 공립학교에 대한 체험적 연구.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5(1), 107-130.
 노형규, 오광진(2005). 정서장애 및 정신신체 아동의 신체활동 지도를 위한 특수체육지도자들의 준비요건.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3(2), 43-55.
 대한장애인체육회(2007).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
 박병도(2007). 장애인 엘리트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특수체육교육(학)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5(2), 33-47.
 박병도, 임찬규(2004). 우리나라 장애인스포츠 실태에 관한 파라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의 인식 연구. **특수체육연구**, 2, 63-80.
 박진경(1999). 스포츠와 정보화. 제4차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정기세미나. 한국스포츠사회학회.
 박진경(2000). 클럽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체육지도자의 역할과 과제. **한국체육학회지**, 39(2), 139-153.
 신철호, 손천택(1996). 경기지도자 양성실태와 새로운 육성방안. 제36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88-194.
 안혜임, 김경숙(2006). 사회체육지도자의 교육경험과 전문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방향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45(5), 211-226.
 엄한주(1996). 심리검사지 개발 및 분석에 관한 고찰. 한국스포츠심리학회(편). 스포츠심리학 연구법. 서울: 보경문화사.
 오광진(2010). 특수체육의 이해. 서울: 레인보우북스.
 이근모, 김인형(2006). 스포츠과학 데이터 분석법. 서울: 대한미디어.

- 이범진(2007). 대학의 특수체육 교육과정 탐구. **2007 한국특수체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특수체육교육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 43-59.
- 이인경, 최승권, 이재원(2006). 경인지역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4(1), 37-60.
- 이종성(2001). **델파이 방법**. 교육 심리 사회 연구방법론 총서 시리즈 21. 서울: 교육과학사.
- 임번장(2008). **사회체육개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사.
- 조영희(2010). 특수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특수체육교육(학)과 학생들의 전공교과과정 만족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8(2), 137-155.
- 채규연, 조영희(2010). 특수체육지도자의 스포셜올림픽 참여경험과 교육신념에 관한 연구.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8(3), 71-84.
- 최선미(2001). **특수체육지도자의 교육신념과 실제 지도행동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승오, 김승재(2003). 특수체육교사 자질조건의 중요성에 대한 전문인의 인식.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1(1), 61-77.
- 최승권, 한동기, 김권일(2004). 장애인 엘리트체육에 대한 장애인 엘리트선수의 인식 조사. **특수체육연구**, 3, 29-46.
- 최의창(1995). 반성적 전문인으로서의 체육지도자. **스포츠과학**, 52, 16-22.
- 최의창(1996). 체육지도자의 실천적 지식. **스포츠과학**, 55, 4-14.
- 탁진국(1996). **심리검사-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Benson, J. (1998). Developing a strong program of construct validation: A test anxiety example. *Educational Measurement: Issues and Practice*, 18(1), 10-22.
- Bird, P. J., & Gansneder, B. (1979). Preparation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Exceptional Children*, 46(5), 464-466.
- Ersing, W. R., & Wheeler, R. (1971). The status of professional preparation in adapted physical education. *American Corrective Therapy Journal*, 25(4), 111-118.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Lawson, H. (1990). Beyond positivism: Research, practice, and undergraduate professional education. *Quest*, 42(2), 161-183.

논문제출일 : 2012 년 4 월 20 일

논문수정일 : 2012 년 6 월 11 일

게재승인일 : 2012 년 6 월 17 일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Qualification Questionnaire for Adapted Physical Educator

Kwang-Jin Oh*(*Korea National College of Rehabilitation and Welfare*)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evelop a qualification questionnaire for adapted physical educators (QQAPE) and to validate the questionnaire. Two hundred sixty nine adapted physical educators participated in first survey. Two hundred eighty one adapted physical educators participated in second survey. All of the participants have experienced adapted physical education at least for one year.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three step validation processing proposed by Kim and Oh (2008), and Benson (1998).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using SPSS 18.0 and AMOS 7.0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5 factors (professional knowledge, exercise ability, human character, self development, and social ability) including 60 items were determined through item analysis for the pilot scale of the QQAPE. Second, 5 factors including 37 items were extracted through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rom the first survey set. Third, 5 factors including 28 items were extracted through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rom the second survey set. Fourth, 5 factors including 21 items were finally determined through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ducted with the 5 factors including 28 items extracted from the second survey set. As a result, it turned out that the subordinate concepts and contents of the 5 factors can be independently measured with the QQAPE.

key words : Disabled Sports, Special Physical Education, Adapted Physical Educator, Physical Educator

"This work was support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KRF - 2011 - 327 - G00113)"

* kunokj11@hanmail.net

부록)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 측정도구

질문 내용
1.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가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Q7)
2. 장애인체육지도자는 감각운동을 알고 있어야 한다.(Q8)
3.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지각운동을 알고 있어야 한다.(Q9)
4.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여가 유형을 알고 있어야 한다.(Q10)
5.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장애인의 수준에 맞게 체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Q18)
6. 장애인체육지도자는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Q19)
7.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알맞은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Q20)
8.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운동기능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Q24)
9. 장애인체육지도자는 개별화 체육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Q28)
10. 장애인체육지도자는 긍정적인 태도가 있어야 한다.(Q31)
11.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Q35)
12.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Q36)
13.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Q37)
14.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성실성이 있어야 한다.(Q38)
15.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Q44)
16. 장애인체육지도자는 단정한 용모를 가져야 한다.(Q47)
17.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줄 알아야 한다.(Q48)
18.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자기관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Q49)
19.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선입견을 배제해야 한다.(Q56)
20. 장애인체육지도자는 편견을 배제해야 한다.(Q57)
21.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장애인을 포용해야 한다.(Q58)

전문지식: 1, 2, 3, 4,

자기개발: 15, 16, 17, 18,

실기능력: 5, 6, 7, 8, 9,

사회성 능력: 19, 20, 21

인간적 품성: 10, 11, 12, 13, 14,

()는 예비판 척도 문항의 번호임